

연구논문

응답자의 성격특성과 응답스타일

Personality Traits and Response Styles

김석호* · 신인철** · 정재기***

Seokho Kim · Incheol Shin · Jaeki Jeong

본 연구는 조사항목에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인 응답스타일과 성격특성과의 관련을 탐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관계없이 설문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인 묵인응답스타일(ARS)와 가장 극단의 응답범주를 지지하는 경향인 극단응답스타일(ERS)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 성격 5요인 모형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검증한다. 2009년 일반종합사회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성과 면접상황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성격특성변수가 ERS와 ARS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ERS의 발생은 응답자의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ARS는 성격특성과의 관련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와 함의와 함께 응답스타일에 따른 편의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과 그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응답스타일, 묵인응답, 극단적 응답, 응답편의, 성격특성, 성격 5요인, 한국종합사회조사

Analyzing the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this study attempts to elucidate the mechanism how content-irrelevant response patterns are formed in the social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response style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Big Five factors(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openness to experience) of personality on the acquiescent response styles(ARS) and extreme response styles(ERS) are examined, controll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terview contexts. The results show that ERS is positively affected by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정재기.

E-mail: jaeki@ssu.ac.kr

and conscientiousness, whereas ARS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y dimension of personality traits.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and the methods to reduce response bias are discussed.

key words: response styles, acquiescent response style(ARS), extreme response styles(ERS), response bias, personality traits, Big Five model,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I. 들어가는 글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성과 연령과 같은 행태학적 특성 이외에 사고, 감정,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회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응답자들이 설문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적 과정을 거쳐 응답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응답은 비맥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Alvarez & Brehm 2002; Cannell et al. 1981; Cronbach 1946; Lentz 1938; Krosnick 199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과학자들은 조사도구의 측정오류의 다양한 잠재원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항목에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 스타일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응답유형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척도의 양끝의 범주를 선택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만 응답하는 패턴 등이 있다.

응답유형의 차이와 그 원인, 그리고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응답유형의 본질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예를 들어, Hofstede(2001)와 Van de Vijver & Leung(1997)은 응답유형의 차이가 방법편향(method bias)의 또 다른 형태이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편향 또는 오차분산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mith(2004)는 응답유형이 그 자체로는 편향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차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편, Fischer(2004)는 양자가 완전히 배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화 간 비교연구에서 문화적 특성이 응답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편

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도 특정 사회현상에 대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른 응답유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편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지적된 응답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편향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설문과정에서 나타나는 응답스타일을 묵인응답스타일(Acquiescent Response Styles: ARS)과 극단응답스타일(Extreme Response Styles: ERS)로 나누어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각각의 응답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접상황,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중 성격특성 요인이 ARS 및 ER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응답스타일에 따른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과 그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한다.

II. 선행연구

1. ARS(acquiescent Response Styles)와 ERS(Extreme Response Styles)

응답편향(response bias)은 설문의 내용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전반적 응답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데(Paulhus 1991), 응답스타일(response styles), 응답세트(response sets) 등으로도 불린다.¹⁾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응답편향은 1950년대 이후 측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Messick 1991). Cronbach(1946, 1950)는 응답편향과 관련된 두 개의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195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설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자 응답세트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여기서 세트라는 개념은 시간압박이나 매트릭스 포맷처럼 특수

1) 응답편향과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들이 사실 전무한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response style과 response set과 관련된 적절한 번역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심리학 방법론 교재에서는 ‘반응양식’과 ‘반응집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필자들은 특히 반응집단이라는 용어는 영어를 직역한 것으로 원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번역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심리학에서 자극의 결과로서 response를 ‘반응’으로 해석한 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나머지 용어는 영어식 한글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한 문항서식으로 인해 응답자에게 요구되는 일시적 반응이나 상황을 말하며, 다른 형태의 문항서식이 제공되거나 다른 시점에 질문되었을 경우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들 수 있다.²⁾

일부 응답세트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응답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Messick 1968), 응답자의 성격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처럼 응답자들이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일정한 편향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Jackson & Messick(1958)은 응답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응답스타일은 내용과 관계없이 설문문항에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경향을 말하며(Baumgartner & Steenkamp 2001), 대표적으로 내용과 관계없이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소위, yea-saying)을 의미하는 묵인응답스타일이 있으며, 내용과 관계없이 가장 극단의 응답 범주를 지지하는 경향인 극단응답스타일과 중간척도범주를 선택하는 중간응답스타일(middle response styles) 등이 있다.

이러한 응답스타일의 문제는 방법편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비교문화와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Van de Vijver & Leung(1997)은 편향을 구성개념편향(construct bias), 방법편향, 문항편향(item bias)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향들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비교연구를 위한 등가성(equivalence)이 충족될 수 없게 된다. 첫째, 비록 다른 문화일지라도 동일한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등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등가성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동일한 양적 척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척도의 측정단위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측정단위의 등가성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값의 점수들이 모든 측면에서 문화들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척도 등가성 또는 전체 점수 비교가능성이다. 이 중에서 측정단위의 등가성 문제가 방법편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 내에서 묵인의 경향이 일반적인 경우 모든 문항의 응답들이 이러한 묵인경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방법편향의 문제는 동일한 도구에서 일부 다른 문항이 포함됨으로써 문화들 간의 응답유형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항편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통계분석 등을 통해 편향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자료 내의 보정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요망', 또는 '사회적 소망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번역하였다.

이 가능하지만, 방법편향은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이러한 편향을 반영하는 평균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지속된다. 따라서 방법편향이 발생할 경우 측정단위의 등가성이 성립하지 못하므로 문화 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 간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편향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응답스타일의 문화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어 왔다(Stening & Everett, 1984; Smith & Fischer, 2008). 먼저, ARS의 정도에 있어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atkins & Cheung(1995)은 호주의 아동들이 중국, 네팔, 필리핀의 아동들보다 묵인의 정도가 낮은 것을 밝혀냈다. Grimm & Church(1999) 역시 미국 학생보다는 필리핀 학생이 묵인의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Steenkamp & Baumgartner(1998)은 그리스, 영국, 벨기에 국민들을 분석할 결과, 그리스인들이 다른 국가 국민들보다 묵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 연구(Baumgartner & Steenkamp 2001)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전된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낮은 묵인 경향을 보이며, 집합주의적 특성이 강한 문화권에서 묵인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가령 개인과 권력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권위주의적 문화에서는 순응과 순종이 강조되며, 이로 인해 묵인응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Hofstede 2001). 권력거리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권력거리와 묵인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둘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Smith 2004; van Hermert et al. 2002).

다음으로, ERS의 정도에 있어 문화 간 차이를 살펴보면 ARS와는 정반대의 경향이 발견된다. 즉,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ERS 경향이 높은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일본 및 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en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일본이나 대만 학생들보다 ERS가 높고 중간점수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Green(1991)의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보다는 미국 학생이 ERS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ERS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스타일과 문화적 차원 간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문화 간

비교를 위해 필요한 구성개념편향과 문항편향이 발생하지 않는 등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방법론적으로 충실한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응답스타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항내용에 따라 응답성향이 문화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설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연구 설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ERS와 ARS의 문화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단위 사회조사가 활성화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특성이나 응답률과 관련된 연구들(김지범 외 2010; 박용치 2000a, 2000b; 이운석 외 2008; 조은희·조성겸 2010)과 무응답 및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들(김규성·박인호 2010; 김상욱 2009; 이계오 2009)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응답스타일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답스타일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발생이 응답자의 특성과 면접상황적 맥락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격특성이 응답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면접상황적 맥락과 관련된 변수들의 설명력에 대한 검증 또한 시도하고자 한다.

2.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과 ERS 및 ARS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하려 할 때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들의 성격특성에 귀인하고는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환원적 관행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Caspi et al. 2005; Funder 2008). 사람들은 일관적인 태도와 행위의 패턴을 가지며, 이는 대부분 그들의 성격특성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성격특성은 자아와 타자를 구별해 주는 본질적이며 안정적인 특성으로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osling 2008). 심리학자들은 성격특성으로 주관적 안녕, 학업성취, 직업 선택, 건강행동, 정신 건강, 종교적 신념 등의 태도와 행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rney et al. 2008; Ozer & Benet-Martinez 2006; Paunonen & Ashton 2001).

사회조사방법론 분야에서도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대부분이 설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오차(response error)에 미치는 성격특성

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Baumgartner & Steenkamp 2001; Eid & Rauder 2000). 성격 특성을 응답편향의 결정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ERS와 ARS가 더 이상 조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아님을 의미한다. 응답스타일이 조사과정에서 발휘되는 응답오차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면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면접상황적 맥락과 더불어 성격특성인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순응경향이 강해 긍정적인 응답을 더 하게 된다거나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외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밝히면서, 성격특성의 요인들과 응답스타일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이, 응답스타일이 성격특성의 행동적 발현이라는 가정 하에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Naemi et al.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25~30%가 ERS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ERS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조사연구와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로 판명되어 왔다(Austin et al. 2006; Eid & Rauber 2000). 성격 특성 중 ERS에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부족이다.³⁾ 즉 모호함에 대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모호한 응답을 피하고 명확한 선택에 귀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RS을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ARS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성격특성과 연결시켜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령 Meisenberg & Williams (2008)는 WVS(World Values Survey) 79개국 자료를 분석하여 ARS가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복종과 순응, 그리고 자기주장이 약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격특성으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성격특성의 측정과 영향력 검증은 5요인 모형(Big Five Model or Five Factor Model)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리학 분야 관련 연구들은 오래 전부터 성격 특성의 주요 요인들을 인지검사나 심리측정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는 노력을 해 왔다.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5요인 모형은 문화적 맥락이나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원적이며 유전적인 특성

3) 모호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이란 Budner(1962)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충분한 단서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구조화되고 범주화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sling 2008). 5요인 모형은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 또는 신경증(emotional stability or 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으로 구성된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와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주로 '사교적인,' '어울리기 좋아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자기주장적인,' '모험을 좋아하는,' '야심적인' 등의 언어로 대표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을 좋아하고, 열정적이며, 낙천적인 데 반해, 낮은 사람들은 조용하고, 수줍고, 과묵하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고,' '너그럽고,' '보살피는,' '인내심 있는' 경향이 있으며 순응적이며 이타적인 품성을 지닌다. 성실성은 과업과 목표달성에 관심과 노력을 잘 집중하며 실수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말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주어진 과업의 완수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 정서적 안정성은 신경증(neurotic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흥분과 침울, 기쁨과 슬픔 등 감정의 양 극단을 오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세상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개 높은 삶의 만족도를 향유한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이 낮으면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자극을 좋아하며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는,' '모험심이 많은,' '미적 감각이 높은' 특성을 지니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성격특성 또는 5요인 모형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 태도를 나타내는 ERS와 무비관적인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ARS와 성격요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ERS 및 ARS같은 응답스타일과 성격요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경험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몇몇 선행연구들의 발견들조차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단력 또는 강한 자기주장과 관련된 외향성이 높을수록 ERS도 증가한다는 결과와 감소한다는 결과가 동시에 도출되기도 한다(Eid & Rauber 2000; Gerber-Braun 2010; Johnson et al. 2005). 뿐만 아니라, Berg & Collier(1953), 그리고 Lewis & Taylor

(1955)는 불안감과 ERS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는 데 반해, Austin et al.(2006), 그리고 Meiser & Machunsky(2008)의 연구는 ERS와 신경증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관련해,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ERS 역시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발견이 후속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Gerber-Braun 2010; Meiser & Machunsky 2008).

ARS의 경우도 ERS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ARS의 예측요인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요인은 친화성인데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이다. 가령, Grimm & Church(1999)는 미국 학생과 필리핀 학생을 비교·분석하여 ARS와 친화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대와는 반대의 경향(친화성이 높을수록 ARS가 감소)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성격요인과 ERS 및 ARS와의 관계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 가설들을 기술하는 대신, 우선 성격특성이 응답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이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응답스타일 중 ERS와 ARS가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 받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KGSS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KGSS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원자료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전국표본조사사업으로,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KGSS는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에 의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2009년 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태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지정모듈인 사회불평등, 특별주제 모듈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과 「한국사회의 정신 건강과 자살」 등과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KGSS는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⁴⁾

4) 2009년도에 실시된 KGSS의 조사방법과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김상욱 외(2009)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를 참고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KGSS처럼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응답스타일이 설문 내용과 관계없이 설문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일부 편향된 모듈 선택에 따른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설문이 포함된 자료가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009 KGSS에는 성격 5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변수 변환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된 10명을 제외하고 1,58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ERS 및 ARS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자 종속변수인 ERS와 ARS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측정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필자들은 일부 주제에 편중된 문항선택을 최대한 배제하고, 같은 척도로 묻은 문항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4개의 문항(고위직의 부패정도 1문항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 동일 직장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등 총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살의 동의 정도에 대해 14가지 문항으로 묻은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09 KGSS에서 26개 문항만을 선택한 이유는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된 항목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선택된 문항들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4점 척도나 7점 척도 등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있지만 문항 간 척도의 비교가능성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도 5점 척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한 문항들로부터 ERS와 ARS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ERS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문항들에서 양 극단 범주(1 또는 5)에 응답한 개수를 세기도 하고, 이것을 문항수로 나누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Bachman & O'Malley 1984; Herk et al. 2004; Johnson et al. 2005).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ERS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ARS 지표 역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순-묵인지수(net acquiescent index)와 묵인균형지수(acquiescent balance index)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양자는 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며, 유일한 차이는 ERS 지수 산출과 마찬가지로 문항의 수를 고려하느냐의 여부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전체 문항들에 대하여 ‘매우 동의’와 ‘약간 동의’에 응답한 개수에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에 응답한 개수를 뺀 값을 말하며(Greenleaf 1992; Hui & Triandis 1985), 후자는 이 값을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이다(Harzing 2006; Herk et al. 2004).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2)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위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 ERS와 ARS의 주된 설명변인으로 고려된 성격특성은 5요인 모형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이 모형은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5요인(Big-F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인은 개인의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까지 폭넓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여기서 5요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친화성(agreeableness),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하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와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지적 자극, 변화, 그리고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이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박일경 외 2010).

이러한 5요인 성격모형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측정도구는 Costa & McCrae(1992)의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인데, 5가지 차원의 성격특성별 6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240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하지만 너무 길고 통합적 해석의 곤란 등의 이유로 이를 변형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이하 TIPI)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Gosling et al. 2003). 이 측정도구는 각 5개의 성격차원을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각 성격차원들의 점수를

Gosling et al.(200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⁵⁾. 각 성격차원들을 조작화함에 있어 응답의 방향성이 다른 문항들은 역부호화하고, 각 차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TIPI의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향성은 ㉠ 외향적이며, 열정적인지(extraverted, enthusiastic)와 ㉡ 내성적이며, 조용한지(reserved, quiet)로 측정된다. 친화성은 ㉢ 비판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지(critical, quarrelsome)와 ㉣ 동정심이 많고, 다정다감한지(sympathetic, warm)로, 성실성은 ㉤ 신뢰할 수 있고, 자기절제를 잘 하는지(dependable, self-disciplined)와 ㉥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나, 덩벙대는지(disorganized, careless)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정서적 안정성은 ㉦ 근심 걱정이 많고, 쉽게 흥분하는지(anxious, easily upset) 그리고 ㉧ 차분하며, 감정의 기복이 적은지(calm, emotionally stable)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복잡다단한지(open to new experiences, complex)와 ㉩ 변화를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못 한지(conventional, uncreative)를 통해 확인된다.

3) 면접상황적 맥락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스타일은 조사내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응답편향이며, 각 개인들마다 다른 안정적인 성격특성의 행동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 포함된 면접상황적 맥락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설명변인이라기보다는 통제변인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면접상황적 맥락이 응답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존 심리학 관련 조사연구들이 면접상황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조사 자료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서도 미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urvey)와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만이 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둘째, 응답스타일 자체가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면접상황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제변인 수준에서나마 이들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5) Gosling et al.(2003)은 부록을 통해 측정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성격특성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다. 동 검사도구의 특징, 타당도 및 신뢰도 등 자세한 논의는 Gosling et al.(2003)을 참고하면 된다.

먼저 면접상황과 관련해서는 설문지 기입방식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KGSS은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방식으로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조사원이 설문지 전체를 기입하였는지(0 값 부여), 그렇지 않고 응답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문항을 기입하였는지(1 값 부여)로 나누어 분석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면접하는 동안 다른 사람(6세 미만 어린이, 6세 이상 어린이 또는 청소년, 배우자, 배우자 외 성인)이 옆에 있었는지도 고려하였다. 또한 면접하는 동안 응답자의 태도가 협조적이었는지(매우 협조적 또는 약간 협조적인 경우 0 값 부여), 아니면 비협조적이었는지(별로 비협조적 또는 전혀 비협조적인 경우 1 값 부여)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질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와 응답자 접촉의 어려움 정도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면접원의 성별효과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응답스타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일부 논의하고 있다. Austin et al(2006)에 따르면, ERS의 경우 연령의 효과는 U자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은 ERS 경향이 높은 데 반해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ERS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효과와는 달리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을 얻지는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Austin et al.(2006)과 Eid & Rauber(2000)의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ERS 경향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한 데 반해, Greenleaf(1992)과 Naemi et al.(2009)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얻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남성 = 1)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 외에도 혼인상태(유배우자 = 1, 무배우자 = 0), 응답자의 거주지역특성(큰도시 = 1, 소도시 이하 = 0)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은 응답스타일에 일관되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ERS를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Greenleaf 1992; Marin et al. 1992),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것이 재확인된 바 있다(Eid & Rauber 2000). ARS와 관련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Ross et al. 1995). 본 연구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규교육기관 수학년수를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변수들의 특성과 기술통계량값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변수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구분	평균	(s.d)	범위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ERS(Extreme Response Styles) ¹⁾	0.310	(0.208)	0	0.96
ARS(acquiescent Response Styles) ²⁾	0.336	(0.202)	-0.42	0.96
<설명변수>				
성격특성				
외향성(extraversion) ³⁾	4.242	(1.346)	1	7
친화성(agreeableness) ⁴⁾	4.757	(1.043)	1.5	7
성실성(conscientiousness) ⁵⁾	4.697	(1.174)	1	7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⁶⁾	4.111	(1.228)	1	7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⁷⁾	4.289	(1.230)	1	7
<통제변수>				
면접상황				
응답자 기입여부 ⁸⁾	0.197	(0.398)	0	1
면접시 타인동석 여부 ⁹⁾	0.477	(0.500)	0	1
면접시의 태도 ¹⁰⁾	0.095	(0.293)	0	1
질문에 대한 이해도 ¹¹⁾	0.604	(0.489)	0	1
응답자 접촉의 어려움 ¹²⁾	0.167	(0.373)	0	1
면접원의 성별 ¹³⁾	0.361	(0.481)	0	1
응답자특성				
성 별 ¹⁴⁾	0.483	(0.500)	0	1
연 령	43.438	(15.203)	18	94
혼인상태 ¹⁵⁾	0.671	(0.470)	0	1
교육수준	12.425	(3.989)	0	24
거주지역 ¹⁶⁾	0.576	(0.494)	0	1
사례수	1,589			

주: 1) 5점 척도 중 1 또는 5 범주에 응답한 총 사례를 전체 문항수로 나눈 값

2) 5점 척도 중 긍정적(1 또는 2)으로 응답한 총 사례에서 부정적(4 또는 5)으로 응답한 총 사례를 빼고 전체 문항수로 나눈 값

3) ~ 7) 성격특성 측정도구에서 각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8) 일부/전체기입시=1, 면접원 기입시=0

9) 면접시 타인동석=1, 응답자 단독=0

10) 별로 비협조적/매우 비협조적=1, 다소 협조적/매우 협조적=0

11) 질문 이해정도가 매우 높음=1, 기타=0

12) 응답자 접촉이 어려운 경우=1, 기타=0

13) 남성=1, 여성=0

14) 남성=1, 여성=0

15) 기혼/동거=1, 이혼/사별/별거/미혼=0

16) 거주지역; 큰 도시/큰도시 주변=1, 기타=0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성격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면접상황적 맥락이 응답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응답스타일은 양극단에 응답하는 경향인 ERS와 묵인적 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ARS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ERS와 5가지 성격특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1 또는 5에 응답하는 ERS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향적이며, 친화성이 높고, 성실성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에는 ERS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이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모든 변인들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성격특성만을 고려한 [모형 I]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의 성격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ERS와 5가지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ERS	1.000					
외향성	0.079**	1.000				
친화성	0.175***	-0.096***	1.000			
성실성	0.093***	0.015	0.140***	1.000		
정서적 안정성	0.042	-0.162***	0.222***	0.289***	1.000	
경험에 대한 개방성	0.078**	0.263***	-0.096***	0.066**	-0.081**	1.000

* p<0.05, ** p<0.01, *** p<0.001

〈표3〉 ERS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b	(s.e.)	b	(s.e.)
<성격특성>						
외향성	0.0119	(0.004)**	0.0118	(0.004)**	0.0121	(0.004)**
친화성	0.0358	(0.005)***	0.0344	(0.005)***	0.0319	(0.005)***
성실성	0.0109	(0.005)**	0.0111	(0.005)*	0.0093	(0.005)*
정서적 안정성	0.0005	(0.004)	0.0003	(0.004)	-0.0011	(0.005)
개방성	0.0120	(0.004)**	0.0128	(0.004)**	0.0152	(0.004)***
<면접상황>						
응답자 기입	-		-0.0185	(0.013)	-0.0104	(0.013)
타인동석	-		0.0099	(0.010)	0.0076	(0.011)
면접태도	-		-0.0135	(0.018)	-0.0152	(0.018)
질문이해도	-		-0.0114	(0.011)	0.0050	(0.012)
응답자접촉곤란	-		-0.0165	(0.014)	-0.0115	(0.014)
면접원의 성별	-		-0.0081	(0.011)	-0.0143	(0.011)
<응답자특성>						
성 별	-		-		0.0194	(0.011) [†]
연 령	-		-		-0.0007	(0.002)
혼인상태	-		-		0.0079	(0.014)
교육수준	-		-		-0.0032	(0.002) [†]
거주지역	-		-		-0.0289	(0.011)**
상 수	-0.0157	(0.039)	0.0009	(0.041)	0.0451	(0.061)
R ² (adj-R ²)	0.048(0.046)		0.053(0.047)		0.070(0.06)	
F-값	16.24***		7.00***		7.00***	
표본수	1,589		1,589		1,589	

[†] p<.1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모형 II]에서는 면접원이 응답자와 면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 당시의 어떠한 상황도 ERS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기입 여부, 면접 당시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외 다른 성인의 존재 여부는 ERS 경향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면접조사의 난이도도 ERS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상황적 맥락이 ERS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특성이 갖는 효과는 [모형II]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⁶⁾

[모형III]에서는 면접상황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함께 통제된 상태에서의 성격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면접상황만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격특성이 ERS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면접상황적 맥락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와,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남성일 경우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ERS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표 3>에 나타난 결과는 Austin et al.(2006)과 Meiser & Machunsky(2008)가 ERS와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친화성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던 결과와는 다르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ERS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정서적 안정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는 못했던 Gerber-Braun(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ERS는 면접상황적 맥락이나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에 따라 그 발생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누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한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ARS와 성격특성 간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만이 ARS를 응답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격특성들과 ARS 간 통계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6) 연령과 응답스타일 간 U자형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제곱값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도 발견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7)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ERS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개인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해석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ARS와 5가지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ARS	1.000					
외향성	-0.031	1.000				
친화성	0.020	-0.096***	1.000			
성실성	-0.005	0.015	0.140***	1.000		
정서적 안정성	-0.036	-0.162***	0.222***	0.289***	1.000	
경험에 대한 개방성	-0.056*	0.263***	-0.096***	0.066**	-0.081**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러나 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허위적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RS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3가지 모형을 통해 제시되었다.

먼저 [모형Ⅳ]에서 ARS에 대한 성격특성의 효과만을 분석해본 결과,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ARS를 응답하는 경향이 낮으며 다른 성격특성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모형Ⅴ]에서는 면접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었는데, 이 경우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모형Ⅵ]과 같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개방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은 세 가지 모형에 걸쳐 전반적으로 ARS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ARS 경향이 줄어드는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등을 고려할 때, 응답자가 설문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은 성격특성과는 큰 관계를 갖지 않는다. 〈표 5〉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ERS와는 달리 면접상황에 따라 ARS 발생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응답자가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면접을 위한 응답자와 접촉이 곤란했던 경우 ARS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 ARS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Ⅳ		모형Ⅴ		모형Ⅵ	
	b	(s.e.)	b	(s.e.)	b	(s.e.)
<성격특성>						
외향성	-0.0035	(0.004)	-0.0039	(0.004)	-0.0031	(0.004)
친화성	0.0045	(0.005)	0.0051	(0.005)	0.0028	(0.005)
성실성	0.0018	(0.005)	0.0019	(0.005)	-0.0007	(0.005)
정서적 안정성	-0.0086	(0.004)*	-0.0093	(0.004)*	-0.0112	(0.004)**
개방성	-0.0086	(0.004)*	-0.0075	(0.004) [†]	-0.0055	(0.004)
<면접상황>						
응답자 기입	-		-0.0277	(0.013)*	-0.0195	(0.013)
타인동석	-		0.0015	(0.010)	0.0036	(0.01)
면접태도	-		0.0189	(0.018)	0.0163	(0.018)
질문이해도	-		0.0048	(0.011)	0.0202	(0.011) [†]
응답자접촉곤란	-		0.0258	(0.014) [†]	0.0296	(0.014)*
면접원의 성별	-		-0.0004	(0.011)	-0.0050	(0.011)
<응답자특성>						
성 별	-		-		0.0336	(0.010)***
연 령	-		-		0.0049	(0.002)*
혼인상태	-		-		-0.0167	(0.014) [†]
교육수준	-		-		-0.0025	(0.002)
거주지역	-		-		-0.0270	(0.011) [†]
상 수	0.3935	(0.039)**	0.3856	(0.040)	0.3051	(0.060)
R ² (adj-R ²)	0.006(0.003)		0.011(0.004)		0.036(0.026)	
F-값	1.90		1.66		3.45***	
표본수	1,589		1,589		1,589	

† p<.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보여주는 응답스타일 특히 질문 내용에 관계없이 척도의 양 극단에 응답하는 경향과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탐색적인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의 결과, ERS의 발생은 응답자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정서적 안정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ERS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면접상황적 맥락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ARS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격특성보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면접상황적 맥락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응답스타일은 그 종류에 따라 성격특성에 의해 발현하기도 하고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기도 한다. 성격특성, 면접상황적 맥락,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ERS와 ARS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성격특성과 응답스타일 간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응답스타일 점수가 성격특성이라는 심리적 요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ERS와 ARS 등과 같은 방법편향(method bias)은 측정오류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고 측정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저해시킨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응답스타일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응답스타일의 문제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평가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먼저,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가장 쉽고 소극적인 방법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정직하게' 응답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조사표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ARS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동일 수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ARS 자체가 내용에 관계없이 긍정적으

로 응답하는 경향을 의미하므로, 문항의 방향성을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Barrette(2000)에 따르면, 부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을 포함시켰을 때 척도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요인분석에서는 인위적 요인을 생성시키는가하면, 응답자가 반대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우기 Schmit & Stults(1986)도 요인분석에서 역부호화된 문항을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약 10% 정도이며 이 경우 부정문항과 관련된 별도의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들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혼합하기보다는 전체 척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범주의 방향성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실험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조사 이후의 분석과정에서 이런 응답스타일의 편향문제를 통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표준화(standardization)일 것이다. 특히 표준화는 동일 측정도구를 통해 문화 또는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할 경우 유용할 수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평균, 분산, 또는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을 이용한 보정법)과 대상(개인, 집단 또는 문화)에 따라 표준화 과정을 분류한 Fischer(2004)의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Podsakoff et al. (2003)의 제안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향을 제거 또는 설명하기 위해 표준화를 통해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의 한계 역시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통계적 보정을 할 때에는 오차가 순수한 방법오차라는 가정을 하는데, 만약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보정결과는 실제 응답자의 실제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보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조사방법론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서구에서는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소외된 주제인 응답스타일의 편향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성격특성의 측정과 관련된다. Paulhus et al. (1995)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성격특성과 관련된 측정도구 자체가 응답스타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만약 본 연구의 주된 설명변인인 응답자의 성격특성이 응답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는 적절한 자료와 효과적인 연구설계를 활용해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규성·박인호. 2010. “패널조사 웨이브 무응답의 대체방법 비교.” 《조사연구》 11(1): 1-18.
- 김상욱. 2009. “Correlates of the Item Non-Response in Survey Research.” 《한국사회학》 43(6): 147-176.
- 김지범·오미혜·강정한. 2010. “사회조사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인: 2000년 미국 센서스와 2002년 미국 종합사회조사 비교.” 《조사연구》 11(3): 1-18.
- 박용치. 2000. “선거예측에서 편향의 감소: 거짓응답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2): 35-57.
- 박용치. 2000. “자료수집 양식의 응답효과.” 《조사연구》 1(1): 21-43.
- 박일경·이상민·최보영·Yuan Ying Jin·이자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이계오. 2009. “성향점수를 이용한 무응답 보정 연구.” 《조사연구》 10(1): 169-186.
- 이윤석·이지영·이경택. 2008. “온라인조사의 응답오차에 대한 연구: 설문 응답 시간과 응답 성실성의 관계.” 《조사연구》 9(2): 51-83.
- 조은희·조성겸. 2010. “전화조사 상황에서 무선표집절차의 적용결과: 단계별 응답특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1(2): 141-160.
- Alvarez, R. M. and J. Brehm. 2002. *Hard Choices, Easy Answer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 Austin, E. J., Deary, I. J. and V. Egan.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Scale Use: Mixed Rasch Modelling of Responses to NEO-FFI It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35-1245.
- Bachman, J. G. and P. M. O'Malley. 1984. “Yea-Saying, Nay-Saying, and Going to extremes: Black-White Differences in Response Styles.” *Public Opinion Quarterly* 48: 491-509.
- Barnette, J. 2000. “Effects of Stem and Likert Response Option Reversals on Survey Internal Consistency: If You Feel the Need, There's a Better Alternative to Using those Negatively-Worded Stem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3): 361-370.
- Baumgartner, H. and J. B. E. M. Steenkamp. 2001. “Response Styles in Marketing Research: Across-National Investig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143-156.
- Berg, I.A. and J. S. Collier. 1953. “Personality and Group Differences in Extreme Response Se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164-169.

- Budn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9.
- Camey, D. R., J. T. Jost, S. D. Gosling and J. Potter. 2008.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29: 807-840.
- Caspi, A., B. W. Roberts and R. L. Shiner. 2005. "Personality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453-484.
- Cannell, C., P. Miller and L.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In Leinhardt, S.(ed). *Sociological Methodolog*: 492-496. San Francisco: Jossey- Bass.
- Chen, C., S.-Y. Lee and H. W. Stevenson.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3): 170-175.
- Costa, P. T. and R. R. McCrae. 1992. "Multiple Uses for Longitudinal Personality Data."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 85-102.
- Cronbach, L. J. 1946. "Response Sets and Tes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475-494.
- Cronbach, L. J. 1950. "Further Evidence on Response Sets and Test Desig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 3-31.
- Eid, M. and M. Rauber. 2000. "Detect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Organizational Survey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0-30.
-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A Classification of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 Funder, D. C. 2008. "Persons, Situations, and Person-Situation Interactions." In O. P. John, R. W. Robins and L. A. Pervi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 Gerber-Braun, Beatrice 2010. *The Double Cross: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 Respondents with Different Response Sets and Styles on Questionnaires*. Dissertation, LMU München: Fakultät für Psychologie und Pädagogik
- Gosling S. D., P. J. Rentfrow and W. B. Swann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 -528.
- Gosling, S. D. 2008. *Snoop: What your stuff says about you*. New York: Basic Books.
- Greenleaf, E. 1992. "Improving Rating Scale Measures by Detecting and Correcting Bias Components in Some Response Sty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 176-188.

- Grimm, S. D. and A. T. Church. 1999. "Across-Cultural Study of Response Biases in Personality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415-441.
- Harzing, Anne-Wil(2006). "Response Styles in Cross-National Mail Survey Research: A 26-Country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6(2): 243-266.
- Herk, H. van, Y. H. Poortinga and T. M. M. Verhallen. 2004. "Response Styles in Rating Scales: Evidence of Method Bias in Data from 6 EU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3): 346-360
-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ui, C. H., and H. C. Triandis. 1985. "The Instability of Response Sets." *Public Opinion Quarterly*, 49: 253-260.
- Jackson, D. N. and S. Messick. 1958. "Content and Style in Personality Assessment." *Psychological Bulletin* 55: 243-252.
- Johnson, T. J., P. Kulesa, Y. I. Cho and S. Shavitt 2005.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and Response Styles: Evidence from 19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2): 264-277.
- Krosnick, J. 1991. "Response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Cognitive Demands of Attitude Measures in Survey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50: 537-567.
- Lee, C., and R. T. Green. 1991.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s Mode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 289-305.
- Lentz, T. F. 1938. "Acquiescent as a Factor in the Measurement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35: 659.
- Lewis, N. A. and J. A. Taylor. 1955. "Anxiety and Extreme Response Preferenc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5: 111-116.
- Marin, G., R. J. Gamba and B. V. Marin. 1992. "Extreme Response Style and acquiescent Among Hispanic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4): 149-174.
- Meisenberg, G. and A. Williams, 2008. "Are Acquiescent and Extreme Response Styles Related to Low Intelligence and Edu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39-1550.
- Meiser, T. and M. Machunsky. 2008. "The Personal Structure of Personal Need for Structure: A Mixture-Distribution Rasch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4: 27-34.
- Messick, S. 1968. Response sets.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492-496. New York: Macmillan.

- Messick, S. 1991. "Psychology and Methodology of Response Styles." In R. E. Snow and D. E. Wiley(eds.), *Improving Inquiry in Social Science: A Volume in Honor of Lee J. Cronba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Naemi, B. D., D. J. Beal and S. C. Payne. 2009. "Personality Predictors of Extreme Respons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77(1): 261 - 86.
- Ozer, D. J., and V. Benet-Martinez. 2006.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Consequenti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01-402.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Vol.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Paulhus, D. L., M. N. Bruce and P. D. Trapnell. 1995. "Effects of Self-Presentation Strategies on Personality Profiles and Struc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00-108.
- Paunonen, S. V. and M. C. Ashton. 2001. "Big Five Factors and Facet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24-539.
- Podsakoff, P. M., S. B. MacKenzie, J. Y. Lee and N. P. Podsakoff.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oss, C. K., C. A. Steward and J. M. Sinacore. 1995.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Measures of Patient Satisfaction." *Medical Care* 33: 392-406.
- Schmitt, N. and D. M. Stults. 1986. Methodology Review: "Analysis of Multitrait - Multimethod Matric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 1-22.
- Smith, P. B. 2004. "Acquiescent Response Bias as an Aspect of Cultur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50-61.
- Smith, P.B. and R. Fischer. 2008. "Acquiescent, Extreme Response Bias and Levels of Cross-Cultural Analysis." In F. J. R. van de Vijver, D. A. van Hemert and Y. Poortinga(eds.) *Individuals and Cultures in Multi-level Analysis* pp. 283-31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enkamp, J. B. E. M., and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tening, B. W. and J. E. Everett. 1984. Response Styles in a Cross-Cultural Managerial Stud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151-156.
- Van de Vijver, F. J. R. and K. Leung.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In J. W. Berry, Y. H. Poortinga and J. Pande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1). Boston: Allyn and Bacon.

- Van Hemert, D. A., F. J. R. Van de Vijver, Y. H. Poortinga and J. Georgas. 2002. "Structure and Score Levels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Across Individuals and Countr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229-1249.
- Watkins, D. and S. Cheung. 1995. "Culture, Gender and Response Bias: An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5): 490-504.

<접수 2011/6/18, 수정 2011/7/16, 게재확정 2011/7/18>